

농구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결정되는데 있어서의 이상백과 Forrest C. Allen

오이카와 유스케 (도쿄여자체육대학)

이상백은 1930년에 대일본 농구협회를 설립시킨 인물이며, Forrest C. Allen은 전미 농구 코치협회(1927년~)의 초대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즉, 이상백과 Forrest C. Allen은 같은 시기에 각 나라의 농구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농구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올림픽·베를린대회(1936년) 때부터 농구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지만, 그들의 활동은 여태껏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구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결정된 것에 관한 이상백과 Forrest C. Allen의 활동을 고찰하려고 한다. 주요자료로서는, Forrest C. Allen이 “Mr. President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asketball Coaches”(1935)와 “The Olympic Committee on Basketball. Mr. President”(1935) 앞으로 보낸 편지 및 대일본 농구협회의 [농구]를 사용한다.